

3野 '방송 장악' 국조 요구서 제출

선진당 불참·한나라 반대로 채택은 어려울 듯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26일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및 네티즌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3당은 요구서에서 "현 정부는 감사원과 KBS 이사회, 대통령까지 나서 위법적 해임권을 발동, KBS 사장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임명하려는 노골적 음모를 진행했다"며 "급기야 8월 17일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대변인, 방송통신위원장, KBS 이사장이 모여 공영 방송을 정권의 사영화하려는 실

상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3당은 ▲방송언론 탄압의 청와대 책임 여부 ▲이 대통령의 방송사 및 방송유관기관 낙하산인사 실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의 불법 여부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 ▲회시중 방통위원장을 통한 언론장악 기도 실태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으며 조사를 위해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특위를 가동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정조사요

구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국정 조사를 하려거든 방안 경영, 좌파 코드 방송으로 오염시켰던 정연주 시절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여야간 매우 시끄러운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쟁점화하려는 점에 동조하기 어렵다"고 국조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치권 친노인사 모임 정례회

남해서 첫 모임...봉하마을 방문은 취소

참여정부 출신 인사 가운데 정치권에 이미 진입했거나 진입을 모색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례 모임이 꾸러졌다. 참여정부 비서관·행정관 출신 인사 30여명은 25~26일 경남 남해에서 첫 모임을 갖고 1년에 4차례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친목 및 정보교환의 시간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모

임 간사인 김영배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이 전했다. 이날 모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의 이용섭 의원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승용 전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향후 안희정 최고위원과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의원 등 친노 의원들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관은 26일 "총선에 공천

을 신청했거나 출마한 경험이 있는 인사와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인사들로 모임이 꾸러질 것"이라며 "전체 규모는 60여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임 회장은 이용섭 의원이 맡기로 했다. 명칭은 청정회, 사랑회 등 제안이 나왔지만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정회라는 명칭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초 남해 모임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인사차 봉하마을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우리의 우정 소중"...부시, 노 대통령에 친필 서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의 친필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이날 초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미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환대함에 대한 감사의 서한으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황실이 전날 밤 9시32분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 팩시밀리로 통해 보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서한에서 "친애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여사님, 나와 로라(부인), 바버라(장녀)는 서울 방문을 정말 즐겼다"면서 "비

록 여행이 너무 짧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룩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오찬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바버라도 초청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면서 "저도 우리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존경과 함께 건안을 기원 드립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 미국의 선택

민주당 전당대회 첫 날

암투병 케네디 의원 깜짝 등장 환호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선 후보시대를 여는 덴버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행사가 25일(현지시간) 밤 로키산맥을 배경으로 세워진 덴버 펍시센터에서 민주당 대의원과 지지자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취재진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당대회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대의원들과 전국 유권자들이 오바마 후보에게 더욱더 진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자리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선 후보시대를 여는 덴버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행사가 25일(현지시간) 밤 덴버 펍시센터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당대회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온통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연합뉴스

2만여명 함성 축제 분위기

특히 첫날 전당대회 개막식의 주인공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오리건 주립대학의 농구팀 수석 코치인 오빠 크레이그 로빈슨에 의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파스트레이디 후보라는 소개를 받고 등단하자 미셸을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오며 전당대회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미셸 여사는 이날 15분 간의 연설에서 그동안 오바마가 이룩한 많은 성취나 정치적인 변화의 의미를 강조하기 보다는 오바마의 인간적인 면모를 소개하는데 주로 시간을 할애했다.

미셸 "남편 훌륭한 대통령 될 것"

미셸 여사는 남편인 오바마 후보에 대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그가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여사는 오바마 후보는 자신이 처음 만났던 19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사람이고 남편이 특별히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이날 대회를 시청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날 전당대회에 가족들과 함께 깜짝 참석한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의 소개되자 우려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케네디 의원은 전당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만 해도 전당대회 참석이 어려워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의 조카인 캐롤라인 케네디는 케네디 의원을 소개하면서 삼촌이 진보주의자로 걸어진 모습이 오바마 후보가 내건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며 케네디가(家)가 오바마 후보를 전폭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며 '흑인 JFK'로 불리는 오바마 후보에게 케네디가의 후광을 다시 실어줬다.

또 이날 전당대회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참석, 오바마 후보가 민주당을 통합시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아시아계 당원들은 이날 전당대회 열리기 전에 아시아 당원대회(코커스)를 열어 단합을 과시했다. 아시아 당원대회에는 뉴저지 에디슨 시장에 선출된 준 최와 보스턴 시의원 인 샘 윤 등 한국계 대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저격하려던 백인 우월주의자 4명 체포

오바마를 저격하려던 일당 4명이 콜로라도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미국의 CBS방송이 26일 보도했다. CBS 보도에 따르면 백인우월주의 그룹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망원경이 달린

고성능 라이플 2정과 방탄조끼, 마약 등을 지니고 있었다. 콜로라도주(州) 오로라 경찰은 지난 24일 아침(현지시간) 28세의 태린 가트펠이라는 청년 등 4명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국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모집!

개강 9월 5일 ☎ **529-0080**

교원임용문제설명회

유·초·중·고 임용고시의 모든 것!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경영 지도자 과정

스피치 리더십 과정

한아름에탁금

6.50%

1년 만기 (안시판)

저렴한자금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압신설